

# 日本特許制度의 近況

## 發明獎勵 및 特許企業化促進등을 中心으로

〈中〉

李 承 初

〈特許廳 指導課長〉

—承 前—

### ③ 特許企業化促進制度

特許權의 企業化나 實際 活用度가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各國別로 그때 그때 産業의 狀況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다. 日本의 경우는 近間 平均 約 30%~40% 內外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쓸모없는 것이냐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중에는 防禦의 出願이나 이미 출원한 것보다 더 새로운 것도 있기 마련이지만 個中에는 試作品製作技術의 不足이나 資金不足 또는 施設이나 設備不足과 企業化의 能力이 부족한 點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昨年에 特許廳에서 現存하는 特許權·實用新案權中 內國人的 所有分을 對象으로 活用 實態를 調査한바에 의하면 發送된 7,865件中 回信된 件數는 32.1%에 該當하는 2,519건이었으며 이중 활용하고 있다고 回答한 것은 1,680건으로 나타났다. 이 數字로 보면 21.3%에 該當한다. 얼핏보면 日本의 30%에 比하여 相當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그 內容으로 보아서 顯著하게 다르다고 하겠다.

權利의 保有分布가 日本의 경우는 法人이 80% 以上인데 反하여 우리나라는 17%에 不過하다. 물론 技術의 水準에 있어서는 말할 必要도 없다.

특허권이란 어디까지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文獻에 의해서 審査基準에 맞는가를 따져 拒絶할 理由만 없으면 登錄査定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企業化하기에는 여러가지 狀況이 兼備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技術의 으로 製作이 可能되어야 하며 제작된 物品이 經濟性이 있어야하고 市場性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특허권을 얻는 것도 重要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그 權利를 企業化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發明獎勵, 特許權査定, 企業化促進은 특허권의 一連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現狀態에서는 이 3가지가 다같이 發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발명장려가 되지 않아 出願自體가 微微할 때 特許廳의 審査業務는 無意味하게 되며 또 출원은 늘었으나 審査가 不實하면 特許權 自體가 不實하게 된다. 따라서 출원이 늘고 심사도 잘되어 많고 좋은 권리가 設定된다 하더라도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結局은 아무런 口實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企業化促進은 特許制度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日本의 경우 總 出願件數의 50% 以上이 50個 程度의 大企業이 占有하고 있는 까닭에 企業에는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思料되거나 極少數의 中小企業과 個人을 위하여 現在도 多樣하게 企業化促進을 支援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比하여 亦是 이런 點이 日本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發明의 企業化促進을 위하여 各機關에서 行하고 있는 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特許廳：發明實施許諾制度
  - 2) 科學技術廳：① 發明實施化試驗費補助制度  
② 注目發明制度
  - 3) 發明協會：特許技術의 流通促進制度
  - 4) 新技術開發事業團：委託開發 및 開發斡旋
  - 5) 其 他：稅制, 金融上的 支援등이 있다.
- 이를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가) 特許廳：發明實施許諾制度

權利者와 實施希望 또는 讓渡希望者間의 橋梁役割을 해 줌으로써 권리의 死藏을 막고 될수 있는대로 企業化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施行方法은 出願公告決定 前

에 권리의 實施許與 또는 讓渡希望申請書를 특허청에서 接受하여 이를 公報에 掲載시켜 一般에게 알려주고 이중 有用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別途로 抄錄化하여 “發明考案의 紹介”라고 題目을 붙여 冊으로 만들어서 全國 3,000個所에 配付하여 實施化에 도움이 되도록해 주고 있다.

나) 科學技術廳 ① 發明實施化試驗費補助制度

위에서 잠깐 言及한 바와같이 製品하기 위하여는 試驗段階가 필요하다. 이때에 所要되는 試驗費를 補助해 주어 發明의 실시화를 촉진케하는 제도이다.

실시화에 필요한 設備費, 原材料費, 外注加工費, 消耗品費등의 費用中 約 2분의 1을 支給年度 內에 終了가 可能한 者에게 一定한 審査를 거쳐 補助金을 支給한다. 最近의 支給實績을 보면 1977년에 67件의 申請에 9건이 交付되었으며 교부된 金額은 日貨로 2,300萬圓이고 件當 最高로 支給된 金額은 430萬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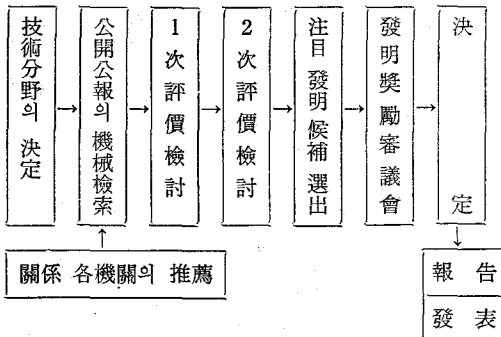
② 注目發明制度

한편 自主技術의 개발을 촉진케하는 一環策으로 將來性 있는 優秀發明特許를 對象으로 每年 社會的으로 強하게 要請되는 種目을 選定하여 이를 實施許與 또는 讓渡등의 措置를 取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題目에서 풍기는 바와 같이 注目할만한 發明으로 主로 國家的으로나 社會的으로 緊要하게 要請되는 比較의 重要한 것으로 指目된다.

여기에 選拔되는 發明 또는 孝案者는 거의가 企業體나 大學研究機關 또는 國公立研究機關이다. 이에 選拔된 권리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설명한 新技術開發事業團에 委託하거나 日本開發銀行에 融資를 推薦해 주는 特典도 賦與되며 各種表彰과 褒賞의 對象이 되기도 한다. 選拔概要와 實績은 다음과 같다.

a. 選拔概要



b. 1978年實績

特定分野	調査件數	候補件數	決定件數
新 에너지	1,043	17	12
新材料	154	7	6
레이저	1,996	16	8
廢棄物處理	1,746	26	13
治療衛生	1,611	21	10
計	6,550	87	49

※ 77年度題目 廢水處理, 廢油處理, 固體廢棄物處理, 勞動安全, 交通安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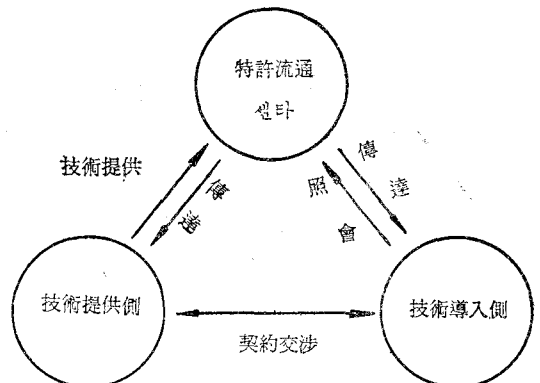
다) 發明協會 : 特許技術의 流通促進

民間機構인 發明協會에서는 發明獎勵事業보다는 微弱하지만 近年인 1975년부터 企業化促進策의 一環으로 技術이 權利者와 企業家間에 交流되도록 하는 特許流通센터를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事業內容과 處理節次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專門技術이 要求되기 때문에 專擔調査員 外에 辯護士와 辨理士등을 諮問官으로 週 3回씩 招聘하고 있으며 技術과 價額의 評價方法은 얼마의 價値가 있다고 判定하는 것이 아니고 兩者가 보고 判斷할 수 있도록 細密한 資料만 作成하여 提供해 준다.

技術料算定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市場의 廣狹, 제품의 性質등이다.

技術流通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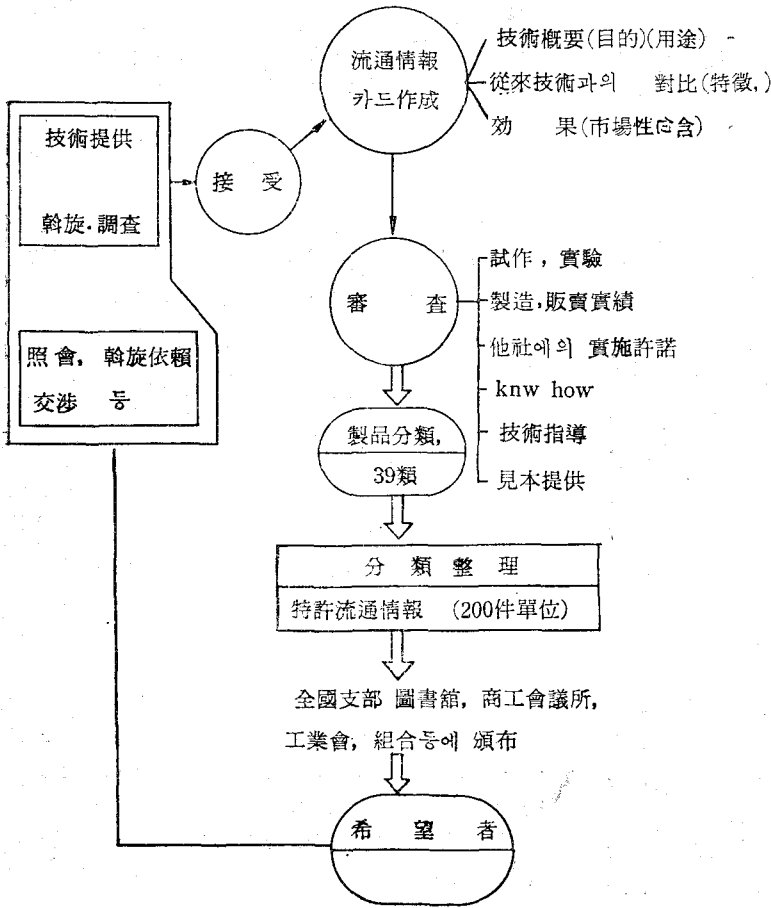


라) 新技術開發事業團 委託開發 및 開發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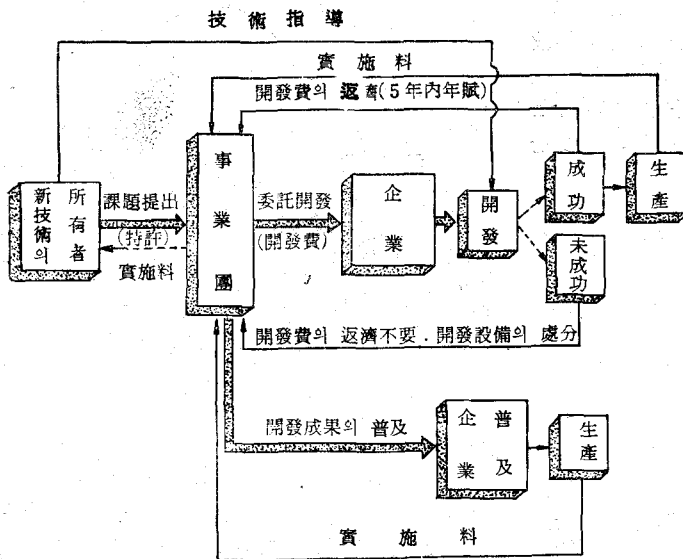
比較的 規模가 크고 投資額이 많이 所要되는 課題(特許되지 않은 것도 包含)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技術의 도입이 斷切될 것에 對備한 자주기술개발과 나아가서 외국技術과의 對抗을 위한 制度的 裝置이다.

여기에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에 高度의 經濟

處理節次圖



委託開發 흐름圖



(特許, 技術 등의 持分, 配分)

成長을 追求하는 意圖로 1961년에 科學技術廳傘下 民間機構로 設立, 運營하고 있다.

資本金이 日貨로 986千萬円이나 되며 每年 政府에서 48千萬円 程度를 補助해 주고 있다. 이 機關의 運營狀況을 보고서 瞬間느낌 所感은 美國이 經濟的 獨立을 이룩하는데 특히제도를 재빨리 활용한 후 歷代統治者가 繼續 이물 이어 받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도 지금까지 有名한 말은 第16代 大統領인 링컨이 “天賦의 才能이라는 불덩이에 개발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 특허제도”라고 한 것이며 第31代 大統領인 후버는 “미국의 특허제도는 美國 産業發展의 기초”라고까지 한 事例이다. 日本도 역시 그런 點을 잘 도입하여 最大限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果然 消化改良의 名手라고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님을 再三 實感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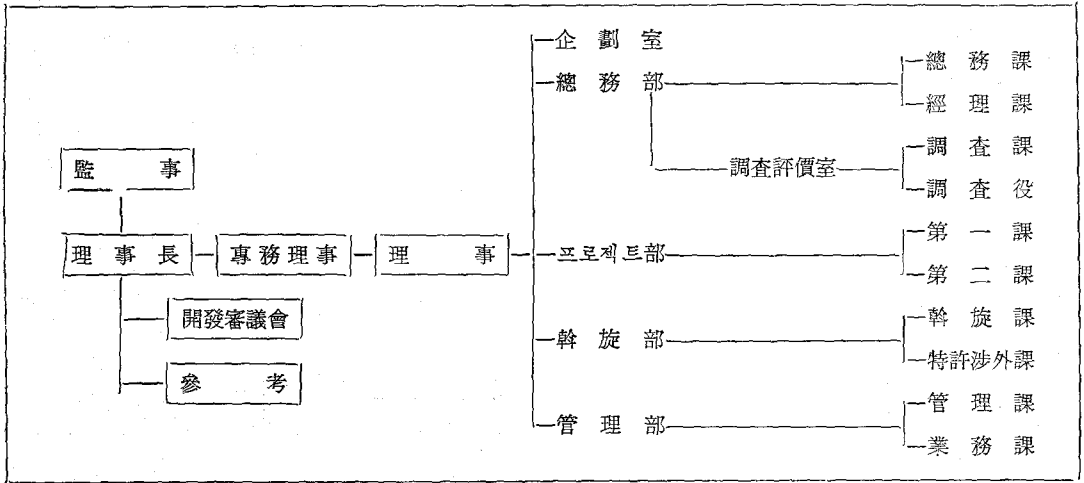
參考로 運營하는 機構와 過程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新技術開發事業團의 開發例를 보면 比較的 長期的 視野의 課題이다.

16年前에 着手하여 最初로 日本의 商業發電으로 成功한 地熱 開發을 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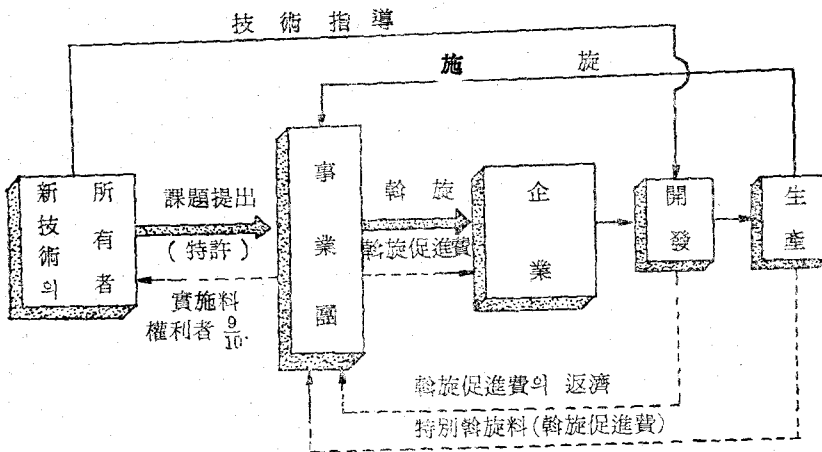
設立後 지금까지 16년동안의 委託開發件數는 163件이며 斡旋 75件的 實적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이 機關은 특히의 企業화 촉진은 물론 日本의 기술개발의 體의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면도 本稿의 連續임)

新技術開發事業團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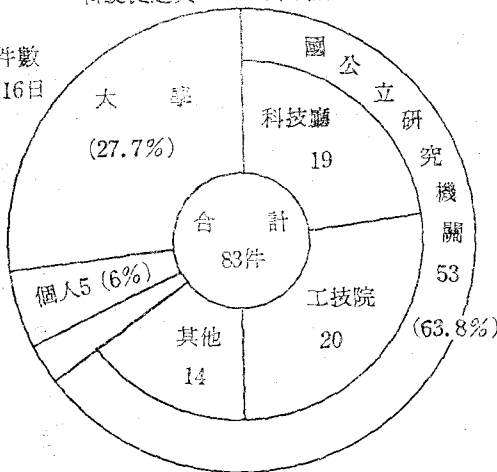


幹旋經緯圖



※ 實施料 實旋期間 範圍等→契約締結擔當  
 幹旋促進費 2年間据置 5年間均分(無利子)

提出者別幹旋件數  
 (1970年 3月 16日  
 現在)



公益法人  
 研究機關  
 2(2.5%)

◎ 開發審議委員會

- (會長) 山內 俊吉 (東京工業大學 名譽教授)
- (會長代理) 祖父江 江寬 (東京大學 名譽教授)
- 加藤 弁三郎 (協和醱酵工業株 會長)
- 久保 俊彦 ((株)日立製作所 副社長)
- 壽原 健吉 (東京教育大學 教授)
- 高木 昇 (日本大學 教授)
- 蓮沼 宏 (東京理科學大學 教授)
- 藤木 俊三 (新日本製鐵株 常任顧問)
- 三島 良績 (東京大學 教授)
- 吉岡 英一 (日本開發銀行 總裁)

< 附 録 >